

[논단]

『마이트라야니 상히타』(*Maitrāyaṇī Saṃhitā*) 1.8.1~3에 대한 번역노트-II* —아그니호트라 제식과 우유—

■
박 문 성

[가톨릭대학교 동양철학 교수·신부]

- I. 들어가는 말
- II. 신체와 가족 안의 아그니
- III. 물과 식물에 대한 헌공
- IV. 태양의 정액으로서 아그니호트라 우유 짜기
- V. 흙으로 만든 그릇에 우유 짜기
- VI. 엮질러진 우유에 대한 속죄
- VII. 아그니호트라 우유의 대체

I. 들어가는 말

『마이트라야니 상히타』(*Maitrāyaṇī Saṃhitā*, 이하 MS로 축약, 기원전 10세기 경)는 흑야주르베다(*Kṛṣṇa Yajurveda*) 학파의 주요 경전이다.¹⁾ 그 중에서 MS 제1권 제8장은 불의 신 아그니에게 바치는 제사, 즉 아그니호트라(*Agnihotra*)에 대한 규정(儀軌, *vidhi*)과 해설을 다룬다. 본 논문은 『『마이트라야니 상히타』(*Maitrāyaṇī Saṃhitā*) 1.8.1~2에 대한 번역노트-I』[『사목연구』 41(2018/겨울)]에서 다룬 ‘아그니호트라를 통한 세계 창출 과정(MS 1.8.1: 114.1~1.8.2: 116.12)’에 이어지는 ‘아그니호트라 제식과 헌공용 우유와 관련된 규정(MS 1.8.2:

* 이 글은 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1) 베다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마이트라야니 상히타』(*Maitrāyaṇī Saṃhitā*) 1.8.1~2에 대한 번역노트-I』[박문성, 『사목연구』 41(2018/겨울)] 323~326쪽을 참조하라.

116.12~1.8.3: 119.7)’ 부분에 대한 시역(試譯)과 역주(譯註)이다. 그것은 아그니호트라 제식행위와 현공용 우유와 관련된 규정의 이해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신체와 가족 안의 아그니(MS 1.8.2: 116.12~117.5)²⁾

그(agní)는 바로 이곳(itá evá³⁾)으로부터 나와서 프라자파티(태어난 것의 主)에게 다시 들어갔던 것⁴⁾이다. 그래서 이것(etad),⁵⁾ 즉 [프라자파티]의 손바닥 [가운데]는 아그니의 의지처(agnidhāna)⁶⁾이다. 그

2) MS의 병행구가 『카타카 상히타』(*Kāthaka Samhitā*, 이하 KS로 축약) 6.2: 50.17~51에 있다. 이하 역주는 도쿄대학 문학부 인도문학연구실 카지하라 미에코(梶原 三恵子) 준교수(准教授)의 2015년도 강의를 정리한 노트에 기초하여, 관련 참고문헌의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3) ‘이타 에바’(itá evá, 바로 이곳으로부터)는 KS의 병행구에서는 ‘파니타스’(pānitás, [그의] 손으로부터)로 되어 있다.

4) MS 1.8.1: 114.11과 115.1은 아그니(불)가 프라자파티로부터 창출되어 나오는 장면과 그로부터 떠나는 장면을 이처럼 묘사한다. “프라자파티가 ‘태어난 것(生物, prajā)’을 창출(創出)했다. [자신의] 머리로부터 처음으로 그가 아그니를 창출한 것이다(prajāpatih prajā asrjata/ sá vā agnim evāgre mūrdható ’srjata). [...] 그곳에서 창출된 그(아그니)가 저편으로 떠나갔다. [그는] 자신의 목을 원했다(so ’smāt srśtāh pārān aid bhāgadhéyam icchāmānah).” 이처럼 프라자파티가 아그니를 창출했을 때, 그의 손바닥으로부터 떠나갔던 아그니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손바닥은 불(아그니)이 태우지 않는다는 사고이다. 참조: 박문성, 『『마이트라야니 상히타』 1.8.1~2에 대한 번역노트-I』, 328쪽.

5) ‘에타’(etad)은 주로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아도 아는 것’을 지시할 때 사용된다.

6) ‘아그니다나’(agnidhāna, 아그니의 의지처)는 『리그베다』(*Rgveda*, 기원전 12세기경, 이하 RV로 축약) 10.165.3에서도 사용된다. 즉, “날개를 지닌 화살(혹은 아그니의 무기, 불꽃)이 우리를 해치지 않기를. [불길한 새가] 불이 있는 곳(火壇), 즉 제화를 위한 그릇(祭器)을 발로 [밟지] 않기를(hetiḥ pakṣiṇī ná dabhāty asmān āṣṭryām padām kṛnute agnidhāne).” RV 계승에서 ‘아그니다나’를 수식하는 ‘아슈트리’(āṣṭrī, 火壇, 불이 있는 곳)는 ‘거대한 숲’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Vedic Index of Names and Subjects*(A. A. Macdonell & A. B. Keith, Delhi: Motilal Banarsidass, 1912, 제1권 70쪽)은 그것을 이처럼 설명한다. “『리그베다』에서 이 단어(āṣṭrī)는 화단(fire-place)을 지시하는 것 같다. 그곳에서 그는 불길한 새(evil bird)가 화단(火壇)에 자리를 잡지 않기를 간구한다.” 한편, 고대인도 제식에서 ‘아그니다나’(agnidhāna)는 ‘제화를 놓는 그릇’(祭器)을 지시한

렇기 때문에 불(아그니)이 손바닥 가운데인 이곳을 결코 태우지 않는다.⁷⁾ [그리고] 죽음에 처한 것(희생제물)이 양손을 내뻗는 것(pratiprasārayati)⁸⁾은 그것이 아그니[의 손바닥]에서 [몸을] 숨길 장소를 구하기 때문이다.⁹⁾ [그렇게] 가축들이 아그니(제화)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아그니(불)가 가축들에 들어간 것이다. [즉] 가축들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축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알고 있는(yá evām véda) 그 사람이 가축들에게 들어간다.¹⁰⁾ 이것에 관해 나라다(Nārada)¹¹⁾가 말하곤 하였다(sma vá āha).¹²⁾ 소가 옆으로 넘어져 있으면, [그것을] 판별하려는

다. 그러나 본 구절에서는 프라자파티의 손의 일부, 즉 손바닥의 중간부분을 가리키며, 제화를 놓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아그니의 의지처’를 상징한다.

7) 이 문장에서 둘째 단어 ‘에토’(éto)에 대한 문법적 분석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ā + itas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분석하기에는 ① 전치사 ‘아’(ā)와 본동사 ‘비다하티’(vidahati; vi-√dah, 태우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② 악센트를 고려하면 ā + itás는 éto가 아니라 étó(ā와 itas에 각각 악센트가 있기 때문)가 되어야만 한다. 둘째, áto로 교정해서 읽는 방법이 있다. 셋째, itás로 교정해서 읽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확정하기에 문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병행하는 다른 경전들도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서술된 것으로 보아 고대인도의 편집자들에게도 그것이 난제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8) ‘프라티프라사라야티’(pratiprasārayati, prati-pra√sr의 사역활용)는 ‘양손은 함께 내뻗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프라티’(prati)는 ‘서로를 맞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죽음에 처한 희생제물이 양손을 맞대고 내뻗는 것은 ① 희생제물로 바쳐질 동물이 죽게 될 때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 ② 죽음에 처한 동물이 두 손을 뻗어 구해 주기를 청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9) 즉, 손바닥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희생제물들이 아그니의 손을 숨는 장소로 원한다는 발상이다.

10) 이 문장에서 인칭대명사 ‘사’(sa, 남성·단수·주격)는 관계대명사 ‘야’(ya, 남성·단수·주격)와 문법적으로 일치시킨 것이다. 문맥상으로는 앞에 나오는 지시대명사 ‘에남’(enam, 남성·단수·목적격)과 문맥상으로 동일한 것을 지시한다. 인칭대명사 ‘사’(sa)는 주로 제로(zero) 주격, 즉 격변화 어미가 붙지 않는 형태로 사용된다. 이 문장의 해석 순서는 ‘enam(2) [...] sá(3) [...] yá(1)’이다. 즉,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축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가축들에게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11) 신과 인간 사이의 전령(傳令) 혹은 사자(使者)로 잘 알려진 대선인(仙人)이다.

12) 불변화사 ‘스마’(sma)는 과거 습관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즉, ‘[과거에] ~을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불변화사 ‘바이’(vai, indeed, truly, just)는 악센트가 붙는 것(vai)이 옳다. 일반적으로 불변화사 ‘바이’(vai)의 한 단어 앞에서 문장

(nirjānāti) 어떤 사람, [즉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가 죽었다¹³⁾고 생각한다.¹⁴⁾ 그렇게 말할 수 있는¹⁵⁾ 것은 그(가축)들이 불에 들어가고, 불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모든 계절에 가축들은 불에 다가가다. 불 없이는 그(가축)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창출(創出)한 가축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자타베다스

이 끝난다. 즉, ‘바이’(vai)는 문장의 두 번째에 오는 것이 규칙이다. 여기서 문장의 4번째에 단어로 온 것은 악센트 없는 것이 앞쪽에 오는 것이 규칙이라 ‘스마’(sma) 다음에 온 것이다. 그리고 ‘etād dha sma vā āha’는 관용적 표현으로, ‘~에 관해 ~라고 말하곤 했었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13) 가축이 아그니(제화)에 들어가고, 아그니(불)가 가축에 들어간다. 그런 다음 소가 누워있는 것만 보고, 즉 만지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을 죽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워 있는 것을 만져보면 따뜻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누워있는 소 안에는 아그니(agni, 신체 안에 있는 불)가 있어서 체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고대 인도에서는 체온이 있으면 죽지 않았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만져만 보면 그것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아그니에 대한 사고는 ‘체온으로서의 아그니’를 위해서도 아그니호트라를 거행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한다. 그 실례가 ‘숨에 대한 아그니호트라’인 ‘프라나 아그니호트라’(prāna-agnihotra)이다. 그리고 고대인도 제식에서 숨을 들이 쉬거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체온으로서의 아그니’에게 바쳐진 아그니호트라라고 이해되었다. 이후 사상적 발전과정에서 신체 전체를 우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체 형태를 갖춘 우주를 움직이기 위해 아그니호트라를 거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더 나아가 식사를 하면서 ‘물→음식→물’의 순서로 먹는 것을 아그니호트라를 거행하면서, 두 번의 버터를 바르는 것과 연결시켜 이해하였다. 즉, 식사행위를 공물에 두 번 버터를 바르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였고, 이런 제식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체 안으로 불을 옮기는 것으로 생각했다.

14) 이 문장 “yātra gāṃ śāyānām nirjānāti mṛtām enām āvidvān + manyatā ity/ agnīm hy évaít [···]”은 다른 편집본에서는 “manyatē ty agnīm hy [···]”으로 나온다. 즉, 불변화사 ‘티’(ty, ~라는) 앞에서 생략되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불변화사 ‘히’(hi, 왜냐하면)는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데, 동사 ‘아하’(āha, 말하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인 ‘이티’(iti)에 가까이 온다. 그런데 제물로 바쳐질 소가 누워 있는 것만을 보고 죽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문장 ① “[···] manyate ty agnīm hy évaít”를 ‘이티’(ty)로 받아서 읽는 것은 의심스럽다. 따라서 ‘만니야테 이티’(manyate iti)로 읽고, ‘아그님 히 에바이’(agnīm hy évaít)로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에 ‘~가 말한다’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manyatē + ity’ 혹은 ‘manyatā + ity’라고 분석해야 할 것 같다.

15) 대동사(영어의 do와 같이 다른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에는 악센트가 없는 것이 일반적 규칙이지만, 불변화사 ‘히’(hi)가 들어간 문장에서는 대동사에도 악센트가 올 수 있다.

(jātavedas)¹⁶⁾라는 아그니의 별명 자타베다스성(jātavedas性)¹⁷⁾이다.¹⁸⁾

16) 경전에서 ‘베다’(véda)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아는 것’(√vid), 즉 지식’이고 둘째, ‘발견한 것’(√vind), 즉 재산(財産)이다. 이 문장에서 ‘베다’는 둘째 의미, 즉 ‘재산’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자타베다스’(jātavedas)에 대하여는 *Altindische Grammatik*(J. Wackernagel & A. Debrunner, Vol.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6~1964, 이하 AiG로 축약) pp.563~564를 참조하라. 그러나 AiG에서는 P. 6.4.15.42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s Altindischen*(Mayrhofer, 이하 EWA로 축약)는 그것은 동사 ‘잔’(√jan, 산출하다)에 대한 것이지, ‘비드’(√vid, 알다)에 관계된 것이 아니기에, AiG가 ‘자타베다스’(jātavedas) 항목에서 파니니를 언급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한다. EWA는 ‘베다’에 대한 두 종류의 실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알다’(√vid)의 실례는 RV 6.15.13와 RV 8.39.6ab이다.

agnir hótā grhāpatih sá rājā víśvā veda jānimā jātavedaḥ/ devānām utā yó mártiyanām yajīṣṭaḥ sá prá yajatām ṛtvāvā/RV 6.15.13//([아그니는 호트리이다. 그는 왕이다. 그는 모든 [것의] 신이다. 그는 모든 태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자타베다이다. 가장 유능한 숭배자가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 있다. 그가 거룩한 현공을 시작할 것이다).

agnir jātā devānām agnir veda mártānām apīcyām/RV 8.39.6ab//([아그니는 신들로부터 탄생하는 모든 것을 안다. 그는 신의 신비를 안다).

둘째 ‘찾다’(√vind)의 실례는 『샤타파타 브라만나』(*Śatapatha Brāhmaṇa*, 이하 ŚB로 축약) 9.5.1.68이다.

átha ha vai rétaḥ siktām prāṇō `nvávarohati/ tad vindate/ tād yáj jātām-jātam vindáte tasmāi jātavedās/(그리고 실제로 프라나로서 [아그니는] 침투한 정자(性液)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소유한다. 태어난 것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그가 자타베다이다).

17) 재산으로 지닌 자로서의 자타베다스성이다. 무엇이든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기의 것이 된다. 태어나자마자 아그니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실로부터 그것들이 아그니의 재산이 된 것이다.

18) sá vā enam itā evā pūnaḥ prāviśad/ etād vā agnidhānam hāstasya yāt pānis/ tasmād éto hāstasyāgnir natamām vidahati yād dhanyāmāno hāstau pratiprasārāyaty/ agnau vā etān nyāñcanam icchate/ `gnim vai pasāvaḥ prāviśanty agniḥ paśūn/ prá ha vā enam pasāvo viśanti prá sá paśūn yā evām véda/ etād dha sma vā āha nārādó/ yātra gām śáyānām nirjānāti mṛtām enām ávidvān manyatē/ `ty agnim hy `evaitē praviśanty agnir etāms/ tasmāt sārvaṇ ṛtūn pasāvo `gnim abhisarpanti/ ná hy etā rte `gnér/ yáj jātāḥ paśūn ávindata tāj jātavedaso jātavedastvām/ 레오폴트 슈뢰더(Leopold Schröder)가 편집한 *Maitrāyaṇī Saṃhitā: die Saṃhitā der Maitrāyaṇīya-Śākhā* (Wiesbaden: Steiner, 1970, pp.116~118)를 저본으로 하였다.

III. 물과 식물에 대한 헌공(MS 1.8.2: 117.5~12)¹⁹⁾

[그가] 그것(供物, āhuti)들을 물에 부어 넣었다.²⁰⁾ 그것(아그니)이 물을 연소시켰다. [그렇게 해서] 물이 아그니의 천둥(vajra, 雷)²¹⁾이 되었다. 그렇기에 공물(供物)에 물을 계속 뿌리는 과정에서, 불에 물이 뿌려지면(prokṣat) 안 된다.²²⁾ 만일 불에 물을 뿌리면, 그 경우는 죽은 [공물에] 뿌리는 것이 될 것이다.²³⁾ 프라자파티는 그것(공물)을 찾았다. 그리고 물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식물(śadhi)²⁴⁾들 표면에 발랐다. 그렇기에 식물들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빛난다.²⁵⁾ [그] 식물들로부터 가축이 [태어났다]. 가축들로부터 인간이 [태어났다]. 이와 같이 아는(yá evāṃ véda) 사람은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빛난다.²⁶⁾ 그래서 봄과 한기(vasantāśisīra)²⁷⁾에는 그 덩불을

19) Cf. 병행구 KS 6.2.51: 3~8.

20) Cf. 병행구 KS 6.2.51: 2~3[*tām āhutim*(51.2)/ *apsū prāśīṇcat tātās śisīram ajāyata*(3)/]

21) RV 시대 이후에는 ‘물 안에 불이 있다’는 사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아팜 나팜’(apām napāt)은 ‘물의 자손’, 곧 아그니(Agni)를 의미한다.

22) 곡물에 물을 뿌리는 것은 괜찮지만, 불에는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

23) 불에 물을 뿌리면 물도 죽고 헌공된 제물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24) 산스크리트어 사전에 단음형태(śadhi, 여성명사 『리그베다』 시기)와 장음형태(śādhī, 여성명사, 브라마나 시기)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단음형태와 장음형태가 같이 나오면, 단음형태가 더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사전에서 ‘śādhīṣu/ śādhī(또는 i)bhyaḥ// śādhayo-ayas → -i/-u-’에서처럼 ‘남성 혹은 여성’(M/F)이라고 표시되는 경우, 원래 남성인 경우가 많다. 단어가 뜻하는 것이 여성인 것이 분명할 때 장음(ī)으로 사용된다. cf. A. A. Macdonell, *A Vedic Grammar for Students*, Oxford: Oxford Clarendon Press, 1916, p.87.

25) 프라자파티가 이미 식물들에게 버터를 발랐다. 따라서 실제로 인간이 식물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빛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26) 식물에 기름이 발라져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태어난 가축과 인간이 빛나게 된다.

27) 봄 직전의 한기(寒期)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모음 ‘아’(ā)가 왜 장음이 되었는데가 문제이다. ‘봄’이 ‘비산타’(visanta)이기 때문에, 원래 ‘바산타 쉬쉬라’(vasantāśisīra, 단음형태)가 자연스러운데, 이 문장에서는 ‘바산타-쉬쉬라’(vasantāśisīra, 장음형태)이다. 복합어를 만들 때, ‘미트라 바루타’(mitrā-varuṇā)의 경우처럼, 주로 쌍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장음 ‘아’(ā)가 남아 있거나 ‘아우’(au)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바산타-쉬쉬라’(vasantāśisīre)는 문법적으로 중성·단수·치격이거나 중성·양수·목적격이다. 그러나 MS 1.6.3: 89.12에 ‘vasantāśisīre ’gim’이 나오는데, 그것에 따르면 양수

불에 태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곳이(etád vai tát)²⁸⁾ 아그니가 즐기는 거주처(dhāman)²⁹⁾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vāvā)³⁰⁾ 현공이 타오른다(śrāyati).³¹⁾ 이 현공을 통해 아그니가 즐겨 머무는 곳(거주처)에 가까이 가게 된다. 또한 그는 가축을 지닌 자가 된다. 또한 그와 같이 공물을 헌공하는 자는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된다.³²⁾

IV. 태양의 정액으로서 아그니호트라 우유 짜기 (MS 1.8.2: 117.12~19)³³⁾

그곳에 [그] 둘이 있었다. 즉 아그니(agní)와 수리야(súrya, 태양)는 붉은 금속으로 만든 한 자궁에 함께 있었다. 그 태양(ādityá)³⁴⁾이 위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의 정액이 저쪽으로 떨어졌다. 그것(정액)을

로 사용되었다면 ‘vasantāśisīre agim’이라고 표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양수가 아니라, 중성·단수·치격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8) 여기서 지시대명사 ‘타트’(tát)이 남성명사 ‘카크샤’(kákṣa, [산림 안에] 감쳐진 것, 덤불)을 지시하기 때문에, 원래 지시대명사의 남성·주격인 ‘사’(sa)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etad dhāmā’(그곳이 거주처, 중성명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즉 ‘덤불이 곧 아그니의 거주처’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시 대상이 남성(덤불)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대명사의 중성·주격인 ‘타트’(tát)이 사용되었다.

29) ‘담만’(dhāman, 중성명사)은 ‘정해진 장소, 거주처, 의지처’를 의미한다. cf. J. Gonda, *The Meaning of the Sanskrit Term Dhāman*, Amsterdam: Noord-Hollandsche Uitgevers, Maatschappij, 1967.

30) 불변화사 ‘바바’(vāvā, 불변화사 just, indeed, just)는 약센트를 두 개 갖는다. 이처럼 단어에 따라서 약센트를 두 개 갖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브리하스파티’(brhāspati, 기도의 주, 기도하는 행위의 신격)이다.

31) ‘슈라야티’(śrāyati)는 어근 ‘쉬라’(√śrā, 끓이다. 요리하다)의 3인칭·단수·현재로서 ‘[냄비에서] 희생제에 사용할 스푼]을 끓이다’를 의미한다.

32) tām apśú prāsiṅcat/ sápo ’nvadaha/ tā agnāye vājro ’bhavams/ tasmād hāvīm̐si prókṣatāgnir abhi ná prókṣyó/ yád abhiprokséd dhaténa yajñéna yajeta/ tām vai prajāpatir ānvaicchat/ tām apśv ānavindat/ tām óśadhīṣu nyāmārt/ tāmād óśadhayó ’nabhyaktā rebhanto/ óśadhībhyah paśávaḥ paśúbhyo manuṣyā/ ānbhyakto ha rebhate yá evām véda/ tát yó vasantāśisīre kákṣaḥ sá upādhéya/ etád vai tát agnēḥ priyām dhāmaiṣā vāvā sāhutiḥ śrāyati/ agnér evaitāyā priyām dhā mópaity/ átho paśumān bhavaty/ átho ātmānam evaitāyā yajamānaḥ punīte/.

33) Cf. 병행구 KS 6.3: 51.9~14; 6.7: 56.19f.

34) 아디티야 신군(神群)을 가리킨다. 8개의 신군 혹은 7개 신군이 언급된다.

아그니가 자궁으로 받았다. 그것(정액)이 자궁을 불태웠다. 그렇기 때문에 합금되지 않은 동[그릇]에 막 짚(pratidhúk)³⁵⁾ [신선한] 우유를 끓이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현공한다. [한편] 쌀과 보리(vr̥hi-yavaú)³⁶⁾는 가축들의 우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우유)을 현공한다. [그러나] 우유는 [지나치게] 가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정액이 말라버릴 것이다. 만일 술에 취한 사람이 그것을 흘려넘치게(vi√syand)³⁷⁾ 했다면, [그것이] 그의 자손에 달라붙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태양의 정액은 [적당하게 가열되면], 이때에 현공될 것이다. 가열되지 않는 것은 현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반드시 그릇의] 입구까지 끓여 오른 것을 현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가열되어 입구까지 끓어올라 현공하기에 적당한 것과 짝을 이룬 것(즉 우유와 그릇, 정자와 난자)이 생식력을 지니기 때문이다.³⁸⁾

35) 어근 ‘프라티 두’(prati√duh, [젓소 또는 산양 등의] 젖을 짜다)에서 파생된 중성명사형이다. 막 짜서 신선한 상태를 가리키며,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는 것이다. 어근 ‘프라티 두’(prati√duh)가 중성명사 형태(pratidhúk)로 파생되는 과정은 이렇다. prati√duh → duh-Ø; duh/dugh(짜다) 2류 → dogh-ti(doh-ti) → dogh-d → dogdhi(h가 d 다음에 온다) → duh-/dugh → dhug(h가 맨 뒤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다) → duk(h가 목음이 되고, g는 k로 변함). cf. T. “Goto, Materilaien Zu einer Liste altindischer Verbalfolgen dogh/dugh/doh/duh”, 『国立民族学博物館研究報告』 16, 1991, pp.681~707.

36) 쌀과 보리 어느 쪽도 좋다. 두 개가 수확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때 수확된 것을 현공하면 된다.

37) 일반적으로 액체가 쏟아지고 넘치는 것과 관련된 두 단어 즉, ① ‘비 쉬얀트’(vi√syand)는 액체 등이 끓어 넘치는 것을 의미하고, ② ‘비 스팬트’(vi√spand)는 [소가 움직여서] 엎질러진 것을 의미한다.

38) sahá vā etā āstām agniś ca sūryas ca samāné yonā āyasi lóhite/ sá ādityá ūrdhvā údadravat/ tāsya rétaḥ párapatat/ tād agnir yōninópāgrhñāt/ tād enam vyādahat/ tāsmād āyo ’trapū pratidhúk kṣīrām vidahati/ tāsmād etāj juhvati/ paśūnām vā etāt páyo yād vr̥hiyavaú/ tāsmād etāj juhūti/ nātiśṛtam kāryam/ rétaḥ śosayad/ yād viśyāndetonmāduko ’sya prajāyām ājāyetāmúṣya vā etād ādityāsya réto hūyate ’medhyām aśṛtam/ samūdantam hotavyam/ tād dhi ṛtām médhyam mithunām prajāniṣṇú/2//.

V. 흙으로 만든 그릇에 우유 짜기(MS 1.8.3: 118.1~3)³⁹⁾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 [우유를] 찐다.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그 그릇(혹은 소) 곁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 대지의 여기에도 저기에도 흠뻑러지지 않도록 [흙으로 만든] 그릇(土器)에 찌는 것이다.⁴⁰⁾ [그곳에] 아리야가 만든 것(āryakṛtī)이 준비된다(bhavati).⁴¹⁾ 신들과 [그곳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아리야가 만든 그릇)이 신과 함께 있기(sādevā)⁴²⁾때문에, 도공이 만든 것, 즉 도공이 물레를 돌려서 만든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은 아수라에 속하는 것이다.⁴³⁾

VI. 엷질러진 우유에 대한 속죄(MS 1.8.3: 118.3~10)⁴⁴⁾

[우유가] 흠뻑러진 곳에 [속죄를 위해] 물을 부어야만 한다. 물은 적정(寂靜)한 것이다. 물이 곧 속죄이다. 물은 치료와 관련된 것 [즉, 치료약]이다. 물이 가까이 [흘러가는 지면(地面)], 그곳에서 아주 탁월한 식물들이 생겨난다. 만일 젖소가 자기 밑에 있는 [그릇]을 깼을 경우, [그 소를] 물로 닦고 다른(anya)⁴⁵⁾ 그릇에 [우유를]

39) Cf. 병행구 KS 6.3: 51.18~52.1; 51.14f.

40) Cf. 병행구 KS 6.3: 51.9 yā sthāly agnihotra panī/ tayā duhyād iyaṃ vai mānavā/ imām iha nehātiskandaty(그릇은 아그니호트라에서 [우유를] 끓이는 것이다. 사람은 그것을 사용해서 [우유를] 짜야만 한다. [지면(地面)의] 여기에도 저기에도 뿌려지지 않기 위하여).

41) 일반적으로 ‘바바티’(bhavati, ~이 되다)는 ‘[그 장소에] 드러나다’ 혹은 ‘~가 되다’라는 뜻인데, 이 문장에서는 ‘준비되다’ ‘쓰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42) 여기서 문법적으로 예상된 형태 ‘사데비’(sādevī)가 아니라 ‘사데바’(sadevā)가 온 것은 장음에 이어지는 다음 모음이 ‘아’(a)이기 때문이다.

43) sthālyā duhaty/ anāyā vā etād ūpasīdanti/ nāhīmāmītō nētāḥ skāndaty āskannatvāyā/ āryakṛtī bhavaty ūrdhvākāpālā sadevatvāyā/ sā hī sādevā/ asuryam vā etād pātṛam yāt kulālākṛtam cakrāvṛttam/.

44) Cf. 병행구 KS 6.3: 52.2~7; TB 1.4.3.3~5.

45) 이 문장에서 대명사 ‘안니야’(anya, 다른)를 번역하는 것은 어렵다. 현공용 우유가 흘러넘치거나 엷질러졌을 때, 학파에 따라서 ① 전부 다시 짜서 사용하는 경우와 ② 남은 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동일한 주제를 언급하면서

짠다. 제식(yajña)⁴⁶⁾이 제식의 속죄(prāyaścitti)⁴⁷⁾이기 때문이다. 만일 불에 놓인 [우유가] 옆질러졌다면, 만일 채워지는 과정에서 [우유가 옆질러졌다면], 만일 채워진 [우유가 옆질러졌다면], 만일 뿌리는 과정에서 [우유가 옆질러졌다면], 만일 뿌려진 [우유가 옆질러졌다면], 만일 동쪽으로 향하여 바쳐진 [우유가 옆질러졌다면, 그 그릇을] 비우고 나서 새로운 그릇(혹은 새로운 젖소)에 [우유를] 짜야 한다. 제식이 제식의 속죄이기 때문이다. 『리그베다』에서 바루나를 위한 [아누바키야(anuvākya, 호트리 제관이 읊는 만트라)]를 읊고 나서, 바루나에게 [그 만트라]와 함께 헌공해야만 한다. 바루나는 헌공으로서 이것(옆지른 것)을 받아들인다. 그의 의지에 따라서 [그와 같이] 바르게 보상된다. 바로 그것이 [아그니호트라의] 속죄법이다.⁴⁸⁾

도 학파 또는 시대가 다르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헌이 많다. 우유가 흘러넘쳤을 경우, ‘① 우유를 다시 짤 것인가? ② 어디에 짤 것인가? ③ 어디를 향해 짤 것인가? ④ 남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각 학파들은 서로 다르게 규정한다. 예를 들면 그릇이 깨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 그릇을 그냥 쓰는 학파도 있지만, 다른 새 그릇을 사용하는 학파도 있다. 이렇게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명사 ‘안니야’(anya)의 번역어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다른 여인’ ‘다른 젖소’ ‘다른 방향’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6) 어근 ‘야즈’(√yaj, 제사지내다)에서 파생된 남성명사 ‘야즈냐’(yajña-)는 ‘희생제’(sacrifice)보다는 ‘제식’(ritual)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이미 희생제가 거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대인도 공동체가 거행하는 슈라우타(Śrauta) 제식은 공물(供物) 종류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곡물(isti)요리를 사용하는 ‘하비리야즈냐(haviryajña)제식’이고, 둘째, 흥분하는 성분이 있는 음료 소마(soma)를 주요 공물로 하는 소마제이다. 참조: 에이노우 신고(永ノ尾 信梧), 『古代インド祭式文獻に記述された穀物料理』, 『国立民族学博物館研究報告』 제9권 3호, 1984, 521쪽.

47) ‘프라야슈치타’(prāyaścitta-)는 제식을 잘못 거행했을 때, 그 제식을 올바르게 고쳐서 거행하는 것이 일차적 의미이다. 그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일반적 죄에 대한 속죄 개념으로 확대된다. 제식과 관련된 속죄법(prāyaścitti)에 대해서는 사카모토 코코(坂本 恭子)의 『Aginihotra祭におけるprāyaścittiについて』(『待兼山論叢』 30 哲学篇, 大阪大学出版部, 1996)와 『Aginihotra祭のprāyaścittiに見られる用語について』(『印度學佛敎學研究』 제45권 1호, 日本印度學佛敎學學會, 1996), 니시무라 나오키(西村 直子)의 “The Change of the Theory about Soma’s Circulation in the Śatapatha-Brāhmaṇa”(『印度學佛敎學研究』 57-3호, 日本印度學佛敎學會, 2009)를 참조하라.

48) yātra skāndet tād apō ninayed/ āpo vai śāntir/ āpo niṣkr̥tir/ āpo bheṣajā/ yātra vā etā asyā

VII. 아그니호트라 우유의 대체(MS 1.8.3: 118.10~119.7)

생명력(남성다운 힘, 영예)을 갈망하는(téjaskāma) [바라문은 또는] 브라만에 대한 지식(베다의 빛, brahmavarca)을 원하는 [바라문은] 물을 끼얹지 않은(apraṭiṣekyá, 즉 물이 섞이지 않은) [우유로 아그니호트라를] 거행해야만 한다. ‘비라(vīrá, 半人半馬)가 나에게서 태어나게 되기를’ 하고 갈망하는 [바라문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물을 끼얹지 않은 뜨거운 우유가 생명력이고 베다의 빛이다. [그것을 통해 그는] 생명력과 브라만에 대한 지식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퍼지게 하고 싶은 만큼 [그것을] 뺄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hāsyā)⁴⁹⁾ 비라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 물을 끼얹지 않은 [우유가] 없는 경우에는 버터를 [이용하여] 헌공해야만 한다.⁵⁰⁾ 그것(버터)은 물을 끼얹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녹아서] 떨어지는 [버터는] 속죄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에 가축을 많이 지닌 자가 되지는 못한다. 이와 같은(vai)⁵¹⁾ 방식으로 가축의 우유가 불에서 타오른다. [그것이] 가축에게 고통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불을 약해지게 하지 않으면, [그 불이] 가축을 타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렇기에 물을 [조금씩] 뿌리면서 [아그니호트라를] 거행해야만 한다. 그는 불꽃에 물을 [조금씩] 부어야만 한다.

upayānti tát-prásastatarā ōśadhayo jāyante bāmhīyaśr/ yādi duhyāmānāvabhindyādanyāyā sthālyā
nirñijya dohyā/ yajñō hi yajñāsyā prāyaścittir/ yādy ādhiśritam skānded yādy udvāsyāmānam
yādy ūdvāsitam yādy unnīyāmānam yādy ūnnītam yādi purāḥ pārāhṛtam hōnāya pūnar
avānīyānyābhidyā/ yajñō hi yajñāsyā prāyaścittir/ vāruṇim rcamanūcyā vāruṇim rcamanūcyā
vāruṇyā hotavyam/ vāruṇo vā etād yajñāsyā grhṇāti yādāchanti/ niṣkrīr evaiṣā prāyaścittir/

49) 불변화사 ‘하’(ha)와 인칭대명사 ‘아시아’(asya)가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인칭대명사 ‘아시아’(asya, 남성·단수·속격 대명사) + 비라(vīrah, 남성·단수·주격)라는 문장은 ‘속격 + 주격’의 전형적인 실례로서, ‘~(속격)에 있는 것으로서 ~(주격)가 있다’라는 뜻에서 출발하여 ‘속격이 주격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확대된다. 따라서 ‘그에게 바라가 태어날 것이다’ 혹은 ‘그가 비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

50) 즉, 그에게 신선하고 순수한 우유가 없으면 버터를 사용해야 한다.

51) 여기서 불변화사 ‘바이’(vai)가 나온 것은 앞으로 이야기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불길을 다스려야 한다. [그는] 젓소의 [우유를] 짠 그릇을 닦았던 물⁵²⁾을 사용하여 [조금씩] 뿌려야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은 물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젓소에서] 짠 것으로부터 [현공용] 그릇에 옮겨질 때 흐른 것이다(yarhi [···] tarhi pariya⁵³⁾). 왜냐하면 대지에 의해 이 나무가 감추어지기 때문이다.⁵⁴⁾ 그렇기에 아그니는 [조금씩] 물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한 방울(stoka)의 [물]로 열기가 없어지지(vináyati)⁵⁵⁾ 않는다. [그러나] 가축에게 고통을 주는 [열은] 식는다. 가축들은 [불꽃의] 빛과 신적인 빛이 된다. 물과 우유는 한 조이다. 알려진 바대로(khálu), [그] 한 조로부터 자손들과 가축들이 태어난다. 그렇기에 한 조이다. 다른 것이 아닌 [그] 한 조를 가지고 현공하는 [사람은] 자손들과 가축들의 형태로서 변영한다.⁵⁶⁾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조금씩 뿌려야 한다면 우유죽(odaná)⁵⁷⁾

52) 우유를 짠 그릇을 닦은 물이라는 것은 그릇을 닦으면서 우유가 약간이라도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즉, 물도 아니고 우유도 아닌 상태의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53) “yarhi [···] tarhi pariya”라는 문장은 ‘이것이 짠 그릇으로부터 옮겨지는 동안 쏟아졌다’라는 의미이다. 혹은 어떤 경우 물이 있는 그릇에 막 짠 우유를 옮겨 담는 의미로도 ‘쏟아졌다’ ‘엎질러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유도 물도 아닌 상태로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54)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단지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祭器)은 거의 나무로 만든 목기(木器)인데, 우유를 짜는 그릇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즉, 목기 대신 흙으로 만든 그릇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지에 의해 나무가 감추어졌다’고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55) 주동사인 ‘빈나야티’(vináyati)에 악센트가 오는 것은 대구법적 악센트(antithetical accent)이다. 즉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하지만 ~하다’등의 문장에서 사용된다.

56) 동사 ‘프라 자’(pra√jā, 태어나다)와 구격이 함께 오면 ‘~와 함께 태어나다’ ‘~이라는 형태로 변영하다’ ‘자손의 형태로 변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57) 슈라우타수트라군(群)에서 전하는 곡물요리는 ① 라자(lāja) 또는 파리바파(parivāpa), ② 탄둘라(taṇḍula), ③ 차루(caru) 또는 오다나(odana), ④ 푸산(pūṣan) 신을 위한 차루(caru), ⑤ 푸로다샤(purodāśa), ⑥ 다나(dhānā), ⑦ 삭투(saktu), ⑧ 만타(mantha), ⑨ 카람바(karambha)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오다나’(odaná)와 ‘차루’(caru)는 기본적으로 현미(玄米) 또는 현맥(玄麥)을 물 또는 우유로 끓인 죽으로 리조토 정도이다. 차루는 원래 청동제 또는 토기제의 요리 냄비를 가리키고 이 냄비에서 요리된 죽이 오다나(odana)였다. 일반적으로 오다나와 차루는 동일하게 ‘죽’으로 번역되지만, 문헌에 따

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은 부어져서 적정(寂靜)한 것, 희생제에 적당한 것(정화된 것), 한 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생명력을 지닌 것이다.⁵⁸⁾

라서 용법의 차이를 보인다. 슈라우타수트라 문헌에서 차루는 공물로써 이용되는 죽을 의미하고, 오다나는 그 이외의 일상생활에서 먹는 죽을 나타낸다. 그러나 MS 1.10.1: 140.14~15에서 오다나를 공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다. 즉, “가정제를 거행하는 마루트(Marut) 신들(神群)에게 저녁에 모든 [젓소]로부터 잔 우유로 [끓인] 죽(을 바친다)(marūdhyo grhamedhébhyah sārvasām dugdhé sâyām odanáh).” 그러나 이것은 제식이 바쳐지는 마루트 신들이 일상 가정생활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차루 대신 오다나가 공물로 사용되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한편, 마리우스(K. Mylius)는 *Sanskritischer Index der jungvedischen Namen und Sachen*(Ethnographisch-archäologische Zeitschrift 17, 1976, p.505)에서 다양한 종류의 오다나를 열거한다. 즉, 우다우다나(udaudana, 물에 끓인 죽), 크쉬라우다나(kṣīraudana, 우유에 끓인 죽), 그리타우다나(ghrtaudana, 버터로 끓인 죽), 틸라우다나(tilaudana, 깨를 끓인 죽), 다디야다나(dadhyodana, 요구르트를 끓인 죽), 맘사우다나(māmsaudana, 고기와 함께 끓인 죽), 목가우다나(mudgaudana, 콩을 끓인 죽)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오다나를 우유로 만든 죽으로서 ‘브라마의 소’(brahmaudara)로서 찬미하면서 공물(供物)을 지시할 때 사용하고, 차루는 곡식 등으로 만든 일반적 죽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문헌도 있다. 참조: 에이노우 신고(永ノ尾 信悟), 「古代インド祭式文獻に記述された穀物料理」, 524~525쪽.

58) apratiṣekyām syāt tējaskāmasya brahmavaracasākāmasya/ átho tústūrśamāṇasya/ átho yāh kāmāyeta/ vīro me ājāyeta iti/ āpratiṣikto vai gharmaś/ tējo brahmavaracasām/ tejasvī brahmavaracasī bhavati/ str̥utē yām tústūrśatā/ ā hāsya vīro jāyatā/ ājyena hotavyam yāsyāpratiṣekyām syād/ etād vā apratiṣiktaṃ/ etād vā apratiṣiktaṃ/ ná tú skannāsya prāyaścittir asty/ átho ná paśumān iva bhavati/ paśūnām vā etāt páyah prákrjyate śucam paśūsu dadhāti/ tējó 'śāntam paśūn nirdahati/ tásmāt pratiṣekyām evām syād/ yád adbhiḥ pratiṣīncéd dháro vinayed/ gāmdohasamnējanena pratiṣicyam/ tát dhi nāpo ná páyas tát āhuḥ/ skāndati vā etād/ yārhi vā etād dōhanāt paryākriyāte tárhi skannām antārhitā hy asyā vānaspátayā/ iti tát adbhir evā pratiṣicyam/ stokénāikena ná háro vináyati/ śucam paśūnām śamayati paśávo vai tējo brahmavaracasām/ mithunām vā āpaś ca páyaś ca mithunāt khálu vai prajāḥ paśávaḥ prājāyante/ tán mithunām/ tásmād evā mithunād yajamānaḥ prajāyā ca paśúbhiś ca prajāyata/ odanéna hotavyam yásya pratiṣekyam syād/ eśā hi pratiṣiktaḥ śāntó médhryo mithunāḥ prajaniṣnúḥ/3//.

[참고 문헌]

- 니시오카 나오코(西村 直子), “The Change of the Theory about Soma’s Circulation in the Śatapatha-Brahmaṇa”, 『印度学仏教学研究』 57-3호, 日本印度学仏教学会, 2009.
- 박문성, 『『마이트리아니 상히타』(Maitrāyaṇī Saṃhitā) 1.8.1~2에 대한 번역노트-I』, 『사목연구』 41(2018/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 사카모토 료코(坂本 恭子), 「Aginihotra祭におけるprāyaścittiについて」, 『待兼山論叢』 30哲学篇, 大阪大学出版部, 1996.
- _____, 「Aginihotra祭のprāyaścittiに見られる用語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제45권 1호, 日本印度學佛教學學會, 1996.
- 에이노우 신고(永ノ尾 信悟), 「古代インド祭式文献に記述された穀物料理」, 『国立民族学博物館研究報告』 제9권 3호, 1984.
- Aufrecht, Th. ed., *Die Hymnen des R̥gveda, Indische Studien* 6~7, Bonn: A. Marcus, 1877.
- Bodewitz, H. W. *Jaiminīya Brāhmaṇa I, 1~65: translation and commentary with a study: Agnihotra and Prāñāgnihotra*(Orientalia Rheno-Traiectina, Volume 17), Leiden: PhD thesis Utrecht, 1973.
- Delbrück, B., *Altindische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Goto, T. “Materialien Zu einer Liste altindischer Verbalformen dogh/dugh/doh/duh”, 『国立民族学博物館研究報告』 16, 1991.
- Joshi, K. IL. ed., *Atharvaveda Saṃhitā*, Delhi: Parimal Publications, 2004.
- Macdonell, A. A., *A Vedic Grammar for Students*, Oxford: Oxford Clarendon Press, 1916.
- Macdonell, A. A. / Keith, A. B., *Vedic Index of Names and Subjects*, Delhi: Motilal Banarsidass, 1912.
- Mylius, K., *Sanskritischer Index der jungvedischen Namen und Sachen*, Ethnographisch-archäologische Zeitschrift 17, 1976.
- Mayrhofer, M.,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s Altindoarischen(EWA)*, Heidelberg: Carl Winter, 1992.
- Oertel, H., *The syntax of cases in the narrative and descriptive prose of the Brahmanas*, Heidelberg: Carl Winters Universitätsbuchhandlung, 1926.
- Schröder, L., *Maitrāyaṇī Saṃhitā: die Saṃhitā der Maitrāyaṇīya-Śākhā*, Wiesbaden: Steiner, 1970.
- _____, *Kāṭhaka: die Saṃhitā der Kāṭha-śākhā*, Wiesbaden: F. Steiner, 1970~

1972.

Wackernagel, J. / Debrunner, A., *Altindische Grammati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6~1964.

Weber, A., *The Śatapatha Brāhmaṇa in the Mādhyandina Śākhā*, Leipzig: Harrassowitz, 1924.

_____, *Die Taittirīya Saṃhitā*, Leipzig: Brockhaus, 2012.

『마이트라야니 상히타』는 흑야주르베다 학파를 대표하는 경전이다. 이 경전의 제1권 제8장은 아그니호트라에 대한 규정과 해설을 다룬다. 본 논문은 『『마이트라야니 상히타』1.8.1~2에 대한 번역노트-I』(『사목연구』 41(2018/겨울))에서 다룬 ‘아그니호트라를 통한 세계 창출 과정’(MS 1.8.1: 114.1~1.8.2: 116.12)에 이어지는 ‘아그니호트라 제식과 현공용 우유와 관련된 규정’(MS 1.8.2: 116.12~1.8.3: 119.7)에 대한 시역(試譯)과 역주(譯註)이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계절과 가축의 창출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제화, 희생제물, 아그니가 머무는 곳(거주지)과 관련된 것이다. 아그니호트라 제식에서 희생제물(가축)이 제화(아그니)에 바쳐지는 것은 가축이 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그니(제화)가 가축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징한다. 여기서 모든 생물(生物)의 ‘체온으로서의 아그니’(불)라는 사상과 ‘물속에 아그니(불)가 있다’는 사상이 발생한다. 희생제물을 제화에 바친 다음, 그 제화에는 직접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타는 공물에 만 조금씩 물을 뿌리는 제식행위를 한다. 이 순간 아그니(불)가 물속에 들어가 그것(물)을 연소시킨다고 여겨졌다.

둘째는 현공용 우유(태양의 정액)와 관련된 것이다. 현공용 우유는 반드시 제식용 그릇의 입구까지 끓어 오른 것을 사용한다. 우선 도공이 흙으로 만든 그릇에 우유를 짜야하는데, 이때 땅에 흠뻑러 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유를 제식용 그릇에 옮길 때도 엷질러지거나 물이 끼여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우유가 쏟아졌다면 물을 통한 속죄행위를 하고 새롭게 우유를 짜야 한다. 그 경우 새롭게 짤 수 있는 우유가 없거나 물이 섞이지 않은 우유가 없다면, 버터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버터를 현공하는 것을 통해서는 온전한 우유를 현공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불길이 너무 타오르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불길을 다스려야만 한다.

▶ 주제어: 아그니, 희생제물, 현공용 우유, 물, 속죄.